

-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 02. 23. (금) 16:00 ~ 18:00
- 장 소 :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더함홀
- 참석인원 : 5명(전문가 4, 관계 공무원 1), (위임자 2명)
- 안 건 : 2017년 사업 결과보고, 2018년 사업계획
- 진행기록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김성운 주무관】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지금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을 한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이신 최양옥 국장님과 이명희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전해드립니다.
- 이명희 과장님 대행으로 익산시 여성보육과 조남우 보육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마지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리별나라어린이집 이정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일숙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성운 주무관】 다음은 조남우 보육계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남우 계장】 인사말씀

【김성운 주무관】 계장님의 말씀처럼 오늘 운영위원회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17년 사업결과와 2018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 센터 사업보고 및 2018년 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7년 운영보고 및 2018년 사업계획》

【김성운 주무관】 육아종합지원센터 2017년 사업보고, 2018년 사업계획 설명

【김성운 주무관】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2018년 운영에 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 논의 사항》

【조남우 계장】 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외부인의 눈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2018년에 새로운 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순】 사업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래프화 하여 사업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실적등을 도표화 하면 분석하거나 관리하기 더 편할 듯 하고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뿐 아니라 지역별 이용 분포도, 이용자 계층등을 분석하여 가시화 하면 취약 계층이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쉽게 파악하여 지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남우 계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난감대여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역 별 분포도나, 이용자 계층을 분석해본적이 있었는데 주로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모현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5%정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이용자 현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작은 도서관등 지역기관을 활용하여 장난감대여실 분점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남우 계장】 네. 모현 도서관과 비슷한 의견을 교류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인력, 공간확보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추 후에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찾아가는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순】 다른 의견을 하나 제시 하고 싶은데 원대, 원보전등 지역사회 청년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요즘 청년 창업등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사회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윤】 작년 원여고 과학동아리와 협력하여 과학프로그램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반응은 좋았으나 강사료 미지급, 재료비 수급등이 어려워 2회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이정선】 강사료나 재료비등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행사시 플리마켓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우 계장】 네, 그러면 연중 큰 행사가 2건 있으니 그때 협력하여 한코너를 진행 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윤】 오는 4월 28일 어린이날 행사가 계획되어있는데 그때 플리마켓을 진행한다면 행사시 한코너를 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정선】 행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행사 시 아이들 팝콘이나 솜사탕 제공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설탕이나 기름이 많은 함유되어있는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꼭 진행되어야 한다면 인스턴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숙】 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때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먹거리등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윤여복】 저희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임신체험, 성교육, 아동학대 교육 등 진행 가능합니다.

【조남우 계장】 그럼 행사 시 외부 부스를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먹거리 부스 등을 진행해주시고, 원보전 유아교육과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신체험 등을 협력하면 행사가 더 풍요롭고 즐길거리가 더 많을 듯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감사드립니다.

【최일숙】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사회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 뿐만 아니라 유아기 아이들부터 인성이나 예절교육 등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등 다양한 문제들이 인성교육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어 더욱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중심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운】 네, 현재 계획되어있는 부모교육등과 연계해 보겠습니다.

【마지순】 부모교육도 중요하고 센터에 방문하는 아들에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먼저 인사해 주시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입구에 베너나 안내문은 붙여 일상에서 인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정선】 아이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미디어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게 한다던지 장시간 티비를 본다던지 요즘 부모님들에게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디어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운】 네, 좋은 의견 이십니다. 대규모 교육이나 부모 교육 진행시 미디어관련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우 계장】 익산시 특화 보육 사업인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정선】 숲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활성화 되고 체계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참여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준비물이 과한 듯 합니다. 숲 체험의 중심은 획일화된 만들거나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관찰하고, 달리며 숲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거나 게임위주가 아닌 숲을 탐색하고 느끼는 활동이 주가 되고 아이들이 필요해 의해 준비물을 요구하면 그때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운】 네. 현재 배포된 32강좌의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숲체험프로그램같은 경우 강사님께서 사전에 원으로 전화를 드려 내용부분을 협력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장님들과 협력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조남우 계장】 저 또한 숲 체험활동이 영유아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연을 느끼고 놀이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

할 때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유념해두시고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일숙】 맞습니다.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활동이나 행사보다는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교육 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남우 계장】 어린이집 연합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익산시 특화 사업을 개발 활성화하여 2018년 사업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 나눠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성운 주무관】 그럼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